

企劃論文

# 여운형의 민족통일노선

양 동 안\*

I. 서언	IV. 여운형과 국내외 정치세력 간의 관계(1)
II. 여운형의 통일 관련 발언들	V. 여운형과 국내외 정치세력 간의 관계(2)
III. 여운형의 정치사상	VI. 결론

## I. 서언

여운형은 한반도가 일제 식민지배로부터 해방된 1945년 8월부터 암살당하는 47년 7월까지 약 2년 동안 미국과 소련에 의해 분단된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했다. 여운형의 그러한 노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구상과 노선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를 정확히 정리해 보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여운형이 어떤 구상과 노선에 따라 민족통일 활동을 전개했는지를 정확히 파악 하려면 먼저 통일과 관련된 그의 발언들을 정리해 봐야 하고, 그와 아울러 그의 정치사상 및 국내외 정치세력과의 관계를 살펴 봐야 한다. 그런 다음 그의 정치사상 및 그의 국내외 정치세력과의 관계에 비추어 민족통일문제에 관한 여운형의 주장의 실질적 의미 또는 구체적 내용이 무엇이었는가를 정리해 봐야 한다.

---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정치이론한국현대정치사 전공.

## II. 여운형의 통일 관련 발언들

여운형은 해방정국에서 민족통일문제에 대해 많은 발언을 했다. 통일문제에 대한 여운형의 발언들을 천명된 시간의 순서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여운형이 미소 양군에 의해 분할 점령된 남북한을 통일하는 방안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최초의 공개 발언은 1945년 12월 7일에 행한 방송연설을 통해 이루어졌다. 여운형은 이날 45년 11월 중순에 창당된 조선인민당의 위원장 자격으로 「인민당의 신념」이란 제목의 방송연설을 하면서 통일문제에 대한 인민당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천명했다.

우리 당은 민족통일문제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최단기간 내(약 6개월 내)에 인민대표회의의 소집을 주장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모두 이 인민대표회의에서 결정하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회의는 국민 대헌장회의라 가칭하고 국호 국기 등 일체 국가의 중요한 사항을 포함한 헌법을 제정하고 현재 가장 주목되어 있는 인민공화국이라든지 임시정부의 문제도 이 회의에서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국론은 인민공화국과 임시정부를 에워싸고 서로서로 일방을 지지하고 일방을 반대하여 두 가지로 분열되어 있으니 이 문제의 해결은 오직 전국의 민의에 물어보는 것(필자 주: 인민대표회의를 의미)이 가장 정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아무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sup>1)</sup>

여운형은 그와 같이 인민대표회의(아마도 남북한 전역의 인민대표회의)의 소집을 제의하면서, 인민대표회의의 소집을 주관할 소집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인민당의 생각을 피력했다. 그는 인민대표회의의 소집위원회의 구성방법으로 1) 각 정당의 대표로 구성하는 방법, 2) 중앙인민위원회와 임시정부 요인들이 타협하여 공동으로 구성하는 방법, 3) 중앙인민위원회와 임시정부를 떠나서 그리고 정당을 초월하여 구성하는 방법 등 3가지가 있는 바, 그 중에서 3)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고 정당하다고 주장했다.<sup>2)</sup> 이러한 인민대표회의의 소집을 통해 통일문제를 해결

1) 『조선인민보』 1945. 12. 8; 몽양여운형선생전집발간위원회 편 『몽양여운형전집』(한울 1991), 248-249쪽

하자는 여운형-인민당의 제안은 남북한의 주요 정당 및 미소 군정당국으로부터 무시되었다.

여운형의 이러한 발언이 있는 지 얼마 되지 않은 45년 12월 26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미·영·소 3국 외상회의에서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한 모스크바협정이 체결되었다. 한반도에 대한 5년간의 신탁통치 실시가 포함된 모스크바협정이 국내에 알려지자 우익진영의 주도하에 격렬한 반탁운동이 전개되었다. 우익진영은 반탁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자율정부를 구성하여 미군정으로부터 정권을 인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공산당을 비롯한 좌익진영은 이러한 우익진영의 반탁운동에 대항하여 모스크바협정 지지운동을 전개했으며, 반탁진영의 자율정부수립운동에 반대하고 모스크바협정에 입각한 통일정부 구성을 촉구했다. 여운형은 이러한 좌익진영의 입장을 대변하여 46년 2월 12일의 기자회견에서 “북에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있고 남에는 미군정이 있는데 자율통일정부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설혹 남조선에만 단독정부가 실현된다면 그 결과는 조선인민을 분열로 오도하고 이 형태로 1~2년만 경과한다면 10년이라도 고칠 수 없는 민족분열의 병근(病根)이 될 것이다. 그러니 나는 이 단독정부에 참가치 않을뿐더러 적극적으로 반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좌익이나 우익이 단독으로 정권을 장악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공산당만 빠져도 안 될 것이다....좌우를 망라한 연립정권만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sup>3)</sup> 여운형은 이 기자회견에서 남한 단독정부 수립은 민족분단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반대해야 하고 통일은 공산당을 포함한 좌우연립(합작) 정부 수립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의 생각을 밝힌 것이다.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던 46년 4월 초, 한반도 임시통일정부 구성을 위한 협의대상에서 반탁운동세력을 제외해야 한다는 소련측 주장으로 인해 미소공위가 결렬될 조짐을 보이고 있을 때, 여운형은 소련의 주장대로 미소공위가 반탁진영을 제외한 여타 정치세력들과 임시통일정부 구성에 관한 협의를 조속히 전개해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2) 위의 글.

3) 『조선인민보』 1946. 2. 22; 『몽양여운형전집』1, 358 쪽

조선의 건설은 조선인이 맡아야 된다. 불원 수립될 신정부도 조선제가 되어야지 외국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조선인이니까 조선의 주인이요 조선정치的主體이다. 외인의 원조는 받을망정 그 괴뢰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의 자율통일이 없는 곳에는 조선제 정부도 없을 것을 잊지 말자..... 우익이라 하여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작용하고 있는 악랄한 비민주주의적 요소, 파쇼적 요소, 친일파 요소들을 반대하는 것이다 이는 조선인의 양심이 죽지 않는 이상 그 반대는 길이 계속될 것이다. 이 불순한 요소들 때문에 통일이 못되고 협작이 못되는 것은 참으로 통분하다.4)

이러한 여운형의 성명 내용은 그가 종전의 포괄적(총망라적) 좌우합작론을 선택적 좌우합작론으로 수정했음을 시사한다. 그는 미소공위가 개최되기 전까지는 우익진영의 어떤 부류를 지목하여 배제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의 기자회견에서는 우익진영의 ‘비민주주의적 요소, 파쇼적 요소, 친일파 요소들’을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그들이 자기가 말하는 좌우합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시사했다. 우익진영 내의 ‘비민주주의적 요소, 파쇼적 요소, 친일파 요소’란 해방정국에서 좌익세력이 이승만세력, 김구세력, 한민당세력을 비하적으로 지칭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여운형은 제1차 미소공위가 협의대상 선정문제를 놓고 교착상태에 빠져 무기휴회에 들어가자 미소공위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 성명에서 여운형은 “미소공동위원회는 7주간을 계속하였으되 조선인을 한번도 그 협의에 참가시킨 일도 없이 그들끼리 이야기하다가 헤어졌다. 그리하여 대망의 임정수립은 드디어 지연되고 말았으니 그 직접 책임이 미소 두 나라에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없다. 우리는 위원회와 협의할 만반의 준비를 가지고 있는 자이니 조선인의 의사를 듣기 위해서라도 위원회는 속개되어야 할 것이다. 주인이 말할 터이니 손은 모여라”고 촉구했다.5) 여운형의 이 발언은 미소공위가 반탁운동세력만 배제하고 나머지 정당과 사회단체 대표들을 불러서 통일정부 구성에 관해 협의하는 소련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아 회담이 결렬된 것을 비판하고, 미소공위를 조

4) 『조선인민보』 1946. 4. 6; 『몽양여운형전집』1, 284쪽.

5) 『자유신문』 1946. 5. 11; 『몽양여운형전집』1, 291쪽.

속히 재개하여 그러한 협의를 진행해달라고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미소공위가 무기휴회 된 후, 미군정은 모스크바협정에 입각한 한반도문제 해결을 거부하는 이승만과 김구를 남한정계에서 거세하고 모스크바협정에 입각한 한반도문제 해결에 협조할 새로운 미군정 협조세력을 형성하기 위해 김규식과 여운형을 중심으로 좌우합작운동을 전개하도록 주선·지원했다. 여운형은 김규식과 더불어 좌우합작위원회를 구성하여 좌우합작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는 자기가 좌우합작운동을 전개하게 된 이유에 대해 “진실한 통일정부는 좌우의 완전한 합작에서 수립될 것이다. 결국 좌나 우나 단독으로는 수립되진 않을 것이며 수립된다 하더라도 지속성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우익 전체를 비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봉건잔재와 파쇼를 배척하는 것이니 이것이 반동자이다. 우익도 애국자이며 우리 독립정부를 민주주의적으로 수립하지는 것이지만 보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초월하여 오늘 이때에 좌우합작하여 통일정부 수립을 못하면 민족분열을 점차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미 북한지역에서 토지개혁 등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민주개혁’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질화된 남북한 사회가 좌우합작을 통해 통일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을 잠재우기 위해 “38이북에서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통일정부가 수립되면 이것을 강력히 추진하려고 하겠지만 민주주의적으로 볼 때 투표한 국회 헌법으로 작성될 것이니 좌우 어느 편이 국회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정책이 시행되는 것이니 이북의 시책은 확정적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sup>6)</sup>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같은 좌익진영 내의 공산당이 좌우합작을 계속 반대하자 여운형은 좌우합작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보다 자세히 제시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건국공작의 지연은 밖으로 관계 연합국의 견해 불일치에도 기인(基因) 되는 바 불무하지만 안으로 민족적 정치역량의 분열대립이 그 주인(主因)임을 인정한다.....3상 결의는 기존문헌 중에서는 조선에 적용될 최유리한 국제적 문건법적 문건이며 3국간에 실천될 기본적 약속임을 확인하여 우선 그것을 수락 실천하면서 4국과 협조하여 우리의 자주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발전 앙양시켜

6) 『독립신보』 1946. 6. 12; 『몽양여운형전집』1, 299~300쪽.

서 가급적 최단기에 완전독립을 달성하여야 한다.... 이번 좌우합작의 산(先) 단계에서는 우선 각 정당과 단체의 주요책임자가 개인자격으로 하나의 연석협의체를 구성하고 그것이 격의 없는 이해와 성의를 보임으로서 구체적 합작의 제2단계로 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협의체는 우선 서울에 있는 주요 정당세력을 포괄할 수 있는 범위로 구성하여 그것이 사절을 북조선으로 보내어 38이북의 제(諸) 주요정치세력까지 이에 합류될 구성으로 확대하면서 소련대표단과도 접견하여 공위 속개를 촉진할 것을 의도한다. 이렇게 하여 좌우남북의 민주주의의 주요정치세력을 대표할 수 있는 요인들의 이해와 의견의 일치로 보게 될 때에는 다시 구체적으로 공위와 보조를 맞추면서 각 정당과 단체의 대표로서 임시정부 수립을 할 수 있는 회의를 구성할 준비에 착수할 것을 의도한다.7)

여운형의 이 성명 내용의 핵심은 1) 좌우합작에 의해 추진하는 통일은 모스크바 협정에 입각한 것이며, 2) 좌우합작을 통해 만들어질 통일준비 기구는 남한지역의 좌우합작기구와 북한의 정치세력이 합작하여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운형의 구상은 이 논문의 6절에서 설명되는 바와 같이 남북통일을 모스크바협정의 틀 속에서 좌익 주도로 달성하려는 것으로서 공산당에 매우 유리한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북한의 김일성은 여운형의 좌우합작을 지지했던 것이다.8)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헌영이 이끄는 남한 공산당은 여운형의 좌우합작에 대한 비판과 방해로 지속했다.9) 이러한 공산당의 비판과 방해에 대해 여운형은 “통일정부의 수립은 민족의 정치적 역량의 합작을 요청하는 것이다. 합작을 아직 거부하고 혹은 방해하는 것은 즉 통일정부 수립의 반대이요, 방해이다”10)라고 반박하며 좌우합작운동을 계속했다.

좌우합작에 열의를 보이던 여운형은 46년 7월말부터 소련의 지시에 따라 전개된 좌익정당들의 합당사업에 참여하느라 좌우합작에 적극성을 보이지 못했다. 그

7) 『현대일보』 1946. 7. 2; 『몽양여운형전집』1, 302~304쪽.

8) 이에 관해서는 이 논문의 4절에서 자세히 설명된다.

9) 박헌영과 공산당은 좌우합작은 미군정의 사주에 따른 것으로서 여운형이 그에 참여하는 것은 미군정을 돕는 것이라는 이유로 여운형의 좌우합작 참여를 집요하게 비판·방해했다. 공산당은 여운형의 좌우합작운동을 저지하기 위해 여운형에게 테러를 가하기까지 했다.

10) 『자유신문』 1946. 7. 22; 『몽양여운형전집』1, 308쪽.

러나 공산당, 인민당, 신민당 등 좌익3당의 합당사업이 박헌영파에 의해 전횡되고, 북한 주둔 소련군과 김일성이 박헌영파의 전횡적 합당작업을 지지하자, 여운형은 그에 반발하여 여운형은 46년 10월부터 좌우합작운동에 다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여운형의 적극적인 참여로 좌우합작운동은 진전을 이룩하여 46년 10월 7일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하게 되었다. 좌우합작 7원칙이 발표된 후 공산당은 그것을 격렬하게 비판했고, 우익 진영 중심부인 이승만과 한민당도 그것을 거부했다. 좌우 진영의 중심세력이 합작원칙을 거부했으므로 좌우합작은 실패로 끝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정과 좌우합작위원회는 좌우합작위원회를 오히려 확대하면서 좌우합작위원회 활동을 강화했다. 여운형은 공산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좌우합작위원회 활동에 계속 참여하는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발표했다.

자주정부의 수립이 민족통일과 좌우연립을 전제로 함은 명백한 일이다. 현재 우리 내부의 분열과 대립은 우리에게 대한 연합국의 국제원조를 대행하는 미소 양국의 대립과 미묘한 교호작용을 계속하면서 미소공위를 중단시키고 과도정부의 수립을 암담한 천연 속에 매몰시킨 중요원인이 되어 있으니, 밖으로 미소의 일치가 있거나 안으로 민족의 통일이 성취되기 전에는 국면의 전환을 바라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밖으로 미소 간에 타협이 먼저 성립될 때에는 우리의 내부적인 통일 혹은 연합은 외적 유도 하에서 실현될 것이며, 만일 우리가 자주적으로 일정한 형태의 내부적 연합을 먼저 실현할 수 있을 때에는 오히려 조선문제에 관한 미소의 일치를 촉진하면서 건국의 과업을 전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경우에도 우리에게 부여되는 결과는 우선 좌우연립의 과도정권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좌우합작은 그 주요목표를 미소공위 속개의 요구와 이것을 통하여서의 민주임시정부의 수립 촉진에 두는 것이다.<sup>11)</sup>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이나 통일이 좌우합작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가 좌우합작위원회 활동에 계속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여운형의 주장이다.

11) 여운형, 「건국과업에 대한 사건」, 『독립신문』 1946. 10. 18~22; 『몽양여운형전집』, 330 쪽

이상에서 소개된 민족통일문제에 관한 여운형의 발언들을 보면, 통일문제에 관한 그의 발언 내용이 시기에 따라 약간씩 변화했음이 드러난다. 그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통일에 관한 여운형의 발언 내용에는 불변적인 두 개의 키워드가 존재한다. 그 중의 하나는 ‘좌우합작’이고, 다른 하나는 ‘자주’이다. 여운형은 민족통일문제에 관한 그의 거의 모든 발언들에서 ‘좌우합작’과 ‘자주’를 반복해서 언급했다.<sup>12)</sup> 그런 점에서 볼 때, 여운형의 민족통일노선은 ‘통일문제 혹은 건국문제의 해결을 외세에 맡기지 말고 우리 민족의 좌우 정치세력이 합작(연합)하여 자주적인 자세로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여운형의 민족통일노선을 그와 같이 정리해놓고 보면, 그의 민족통일노선은 해방정국에서 활동한 여타 정치지도자들의 민족통일노선과 외형상 크게 다를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해방정국의 모든 정치지도자들은 강조하는 정도와 함의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다같이 ‘좌우합작’과 ‘자주’에 의한 민족통일을 주장했다. 통상 해방정국에서 좌우합작을 가장 반대한 것으로 평가되는 이승만도 줄곧 좌우합작 원칙을 지지했다. 이승만이 반대했던 것은 좌우합작 일반이 아니라, 우익 진영의 중심세력을 배제하고 공산주의자들의 한반도 공산화통일 전략에 말려드는 좌우합작이었다. 또한 해방정국에서 소련의 지시에 철저히 추종했던 박헌영도 건국과 통일에 관해서 말할 때는 ‘자주’를 빠트리지 않고 말했다.

따라서 여운형의 민족통일노선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려면 그의 통일노선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그의 통일노선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려면 그의 통일론의 키워드들인 ‘좌우합작’과 ‘자주’를 그가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가를 파악해야 한다. ‘좌우합작’과 ‘자주’는 그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정치사상과 정략에 따라 실질적인 의미가 달라진다. ‘좌우합작’은 합작 참여자를 어떤 사람·세력들로 하며, 합작에 의한 정부구성에 있어서 참여자들 간의 구성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실질적인 의미가 달라진다. ‘자주’는 관련 외국들에

12) 민족통일 문제에 관한 여운형의 발언들 가운데 좌우합작과 자주를 직접 거론하지 않은 것은 45년 12월에 발표한 인민대표회의 소집에 의한 민족통일 제안이 유일하다. 그러나 인민대표회의는 우리 민족의 구성원들이 자주적으로 개최하는 것이며, 그 회의의 소집을 주관할 소집위원회는 좌우를 망라한 모든 정치세력들이 참여하여 구성하는 것이므로 곧 좌우합작을 통해 구성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좌우합작과 자주를 직접 거론하지 않은 인민대표회의 소집론도 내용상으로는 좌우합작과 자주의 원리에 따른 것이다.

대한 구체적 태도에 따라 실질적인 의미가 달라진다. 따라서 여운형의 민족통일노선의 구체적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그의 정치사상과 그가 형성했던 국내외 정치세력들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에 비추어서 그가 말한 ‘좌우합작 과 ‘자주 의 실질적 의미를 도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III. 여운형의 정치사상

여운형은 해방정국에서 자신의 정치사상을 체계적으로 밝힌 글을 발표한 일이 없다. 그는 또 대중 앞에서 자신의 사상이 무엇인지를 정언적(定言的)으로 천명한 일이 없다. 그로 인해 여운형의 사상을 놓고 상충되는 해설들이 병존하고 있다. 자기의 사상을 체계적·정언적으로 밝히지 않은 여운형 같은 정치지도자의 사상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자신 또는 자기가 이끄는 정당의 정치활동의 궁극목표와 당면 목표, 그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전술들에 관해 그가 밝힌 단편적인 진술들을 모아서 모자이크해야 한다.

여운형은 45년 10월에 행한 한 강연에서 “조선민족이 일본 제국주의 하에서 해방되어 건설하는데 민주주의 원칙에서 건설하여, 높고 낮고 부하고 강함이 없는 완전한 무계급 상태가 되기 전에는 혁명적 사명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우리 국가의 조직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무계급 상태의 출현으로 완성됩니다”라고 말했다.<sup>13)</sup> 그는 또 45년 11월 인민당 결당식에서 행한 연설에서 “우리의 큰 길은 민주주의이겠고 우리의 최고이념은 우리 민족의 완전해방에 있다. 우리는 일본제국주의에서 해방되었으나 사람이 사람을 부리고 사람이 사람을 속이며 착취하는 비인도적인 모든 기구가 없어져야 하겠다”라고 천명했다.<sup>14)</sup>

여운형이 이끄는 인민당도 창당선언에서 “조선인민당은 근로대중을 중심으로 한 전인민의 완전한 해방을 그 기본이념으로 하며 조선의 완전독립과 민주주의 국가의 실현을 그 현실적인 과제로 한다”고 천명했고, 강령에서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의 건설’과 ‘계획경제 제도를 확립하여 전민족의 완전 해방을 이룩할 것 을

13) 여운형, 「우리나라의 정치적 진로」, 『학병』 1권 1호(1946. 1); 『몽양여운형전집』1, 254쪽.

14) 여운형, 「나의 정견」, 『몽양여운형전집』, 264 쪽

천명했다.<sup>15)</sup> 이러한 인민당의 성격에 대해 여운형은 45년 12월초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인민당은 그 정치적 이념에 있어서는 공산당과 일치하고 있으나 현 계단에 있어서 전략상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sup>16)</sup>

인민당의 이론가 김오성도 「조선인민당의 성격」이란 글에서 “인민당은 민족반역자와 극좌 극우의 편향자를 제외한 인민의 정당이 되려는 것이다. 노동자 농민 소시민 지식층 중간계급 등의 전인민 속에서 혁명적인 요소를 총집결하려는 것이다....조선인민당은 이러한 의미에서 계급적으로 중간당이다... 인민당이 중간당이라고 해서 사회민주주의를 연상해서는 결코 안 된다. 사회민주주의는 사회개혁을 목표로 한다....인민당이 사회민주주의 정당일 리가 없다. 인민당은 어디까지나 혁명적이며 투쟁적인 정당이다”라고 설명했다.<sup>17)</sup>

위에 소개한 여운형의 말과 글, 인민당의 선언과 강령, 인민당 이론가의 글 등은 여운형과 인민당의 궁극목표가 ‘완전한 무계급사회의 실현’, ‘전인민(민족)의 완전한 해방’이며, 당면목표는 ‘조선의 완전한 독립’과 ‘민주주의 국가의 실현’임을 확인해주고 있다. 해방정국에서 ‘완전한 무계급사회의 실현’, ‘전인민(민족)의 완전한 해방’을 궁극목표로 추구하고 ‘조선의 완전한 독립’과 ‘민주주의 국가의 실현’을 당면목표로 추구하는 점에 있어서 여운형 인민당의 입장은 공산당의 입장과 완전 일치했다. 공산당과 궁극적 목표(기본 이념)를 같이 하면서, 사회민주주의를 거부하는 혁명적인 정치인이나 정당이 자기들의 궁극목표를 ‘완전한 무계급사회의 실현’이나 ‘전인민의 완전한 해방’이라고 천명했을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사회주의 사회의 실현’ 이외에는 없다. 공산당의 궁극목표는 언제나 ‘완전한 무계급사회의 실현’이고 그것은 곧 사회주의 사회(보다 정확한 용어로는 공산주의 사회)의 실현을 의미한다.

사회주의 사회의 실현을 궁극적인 목표로 생각하는 여운형의 노선은 여운형과

15) 「조선인민당의 선언, 강령, 정책」, 『몽양여운형전집』, 237-238 쪽

16) 『조선인민보』 1945. 12. 7; 『몽양여운형전집』, 251 쪽 여운형의 이 발언에서 말한 ‘전략상의 차이’는 ‘전술상의 차이’를 잘못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당면 혁명단계에 있어서의 혁명 실천 방법에 관한 차이는 ‘전술적 차이’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방정국의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용어를 구사함에 있어서 엄밀한 이론적 틀에 입각하지 않은 경향이 있었으며, 여운형도 그 예외가 아니었다.

17) 김오성, 「조선인민당의 성격」, 『개벽』 73호(1946. 1), 46-47 쪽

공산당-김일성-소련군 간의 관계가 소원해진 후에도 지속되었다 여운형과 공산당 김일성-소련군 간의 관계는 46년 10월을 분기점으로 하여 크게 소원해졌다.18) 여운형의 추종자들이 47년 1월 말에 개최한 인민당재건 전국대표자대회의 성명서는 “우리 인민당은 구극적(究極的)으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있을 수 없는 무계급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이미 혁명적 추진을 결의한 자이다. 다만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에 있어서 공산주의적인 저들보다는 조선의 현실에 적응한 민주과업의 정력적 전취로 나아가며 사대주의적 편향성보다는 민주적 자립성에 입각한다”고 천명했다.19) 인민당 재건운동의 결과로서 47년 5월에 창당된 근로인민당의 이론가 이여성은 한 신문기고문에서 근민당을 인민전선적 정당으로 규정하면서, “당은 그 최고이념인 무계급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꾸준한 의식적 투쟁을 계속하여 모든 계급적 모순을 과학적으로 청산기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20) 근민당도 인민당과 동일하게 ‘무계급사회의 건설’, 즉 사회주의 사회 실현을 최고이념으로 추구하는 정당임을 확인했다.

여운형과 그가 이끄는 정당은 사회주의 사회를 실현하는 전략으로 2단계 혁명 전략을 택했고, 당면한 제1단계 혁명을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21)으로 인식했다.

18) 이에 관해서는 이 논문의 4절에서 자세히 언급될 것이다.

19) 여기서 말하는 인민당재건 전국대표자대회는 남조선노동당에 불참한 인민당 여운형파가 사로당을 결성했다가 북조선노동당의 강요로 사로당을 해산한 후 인민당의 재건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한 회의이다. 『경향신문』, 1947. 2. 1; 심지연, 『인민당연구』(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1), 321쪽.

20) 이여성, 「인민전선적 정당의 성격」, 『중외신보』 1947. 5. 16~21; 심지연, 위의 책, 339쪽.

21) 여기서 말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란 일반 사람들이나 비공산주의 사회과학자들이 생각하는 부르주아 혁명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혁명이다. 해방정국에서 좌익진영이 말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란 사회주의 혁명으로 가기 위한 중간단계의 혁명이다. 해방정국의 노장 공산주의자인 조동호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과 프롤레타리아 혁명과는 노선이 전혀 일치되는 것이다. 비유해 말하면 서울서 신의주행 기차를 탄다면 반드시 평양을 통과하는데 이 평양까지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노선으로 신의주행[필자 주: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의미]과 평양행이 서로 반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동행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오늘날의 북한문헌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란 착취 받는 근로대중이 민주주의적인 정치·경제적 요구를 들고 적극적으로 참가한 부르주아 혁명의 발전된 형태이다.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에서는 부르주아 혁명보다는 철저한 민주주의적 개조가 실시된다. 그러나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은 착취를 날게 하는 사적 소유 일반을 없애는 것을 자기의 직접적인 목적으로 내세우지 않는다.... 제국주의시기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기본특징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당의 영도를 받는 혁명적

여운형은 45년 10월에 행한 강연에서 “조선의 현 단계에서는 부르주아지 민주주의 혁명입니다. 민주주의 혁명이 제1입니다. 우리의 큰 혁명은 장래에 있습니다”라고 말했다.<sup>22)</sup> 이 인용문에서 말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다음 단계의 ‘큰 혁명’이 사회주의혁명이라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인민당의 이론가 김오성도 “우리가 완전독립을 통해서 성취해야 할 것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다... 조선의 경제적 제(譜)조건은 아직 부르주아적 산업혁명을 요청하고 있으나 토지문제의 해결과 산업의 재편성이 현 단계의 당면한 긴급사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르주아 혁명이 없이는 사회주의적 계획경제를 실시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다....조선의 현 단계인 부르주아 민주혁명은 근로대중을 중심으로 한 전인민이 부르주아를 대신해서 성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sup>23)</sup> 이러한 2단계 혁명전략을 실천하는 전술과 관련하여 인민당의 창당선언은 다음과 같이 천명했다.

기본이념을 등한시하고 현실적 요청에만 얽매어 있는 것이 역사의 진전을 지연시키는 행위라면 기본이념에만 급급하여 그 현실적 과제를 무시하는 것도 역사의 발전을 지연시키는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선의 현실적 과제인 완전독립 민주주의의 국가의 급속한 실현을 그 당면임무로 자임하는 동시에 우리의 기본이념인 전 근로대중의 완전한 해방에까지 혁명적 추진을 결의하는 것이다.... 우리의 이 당면임무를 수행함에는 각층각계의 인민대중을 포섭하여 완전한 통일전선을 전개하고 관념적 혹은 반동적인 경향을 극복 타파함으로써만 완수될 것이다....조선인민당은 먼저 현 단계의 역사적 사명인 민주주의 혁명에 혼성(渾誠)을 다하고자 하며 이것이 달성됨으로써 일보 전진하여 전민족의 완전해방을 실현코자 용약매진하려 하노니.<sup>24)</sup>

---

노동계급이 광범한 농민대중의 지지를 받으면서 혁명운동의 선두에 선다는 데 있다. 이 혁명에서 노동계급은 농민과 공고한 동맹을 맺고 그를 영도하면서 폭력으로써 봉건제도를 뒤집어엎고 노동자 농민의 민주주의 독재를 수립하며, 그에 의거하여 봉건잔재를 청산하고 민주주의적 변혁들을 실시할 과업을 내 세운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말하는 ‘민주주의적 개조란 지주의 토지를 빼앗아 농민들에게 무상 분배하는 토지개혁을 비롯하여 노동자 농민의 권익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각종 개혁을 말한다. 조동호, 「조선혁명의 현단계」, 『혁명』 1권 호 (1946. 1), 9쪽, (북한사회과학출판사 편, 『정치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73), 481~482쪽

22) 여운형, 「우리나라의...」, 『몽양여운형전집』, 254 쪽

23) 김오성, 앞의 논문, 48 쪽

인민당은 2단계 혁명전략에서 당면한 제1단계 혁명을 실천하기 위한 전술로 통일전선전술을 제시한 것이다. 여운형은 이러한 통일전선전술과 관련하여 45년 12월 “건국동맹이... 마침내 진보적 민주주의의 대중정당으로서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것이 곧 조선인민당이올시다. 우리 인민당은 전 근로대중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물론이요, 진보적이며 양심적인 자본가나 지주까지도 포섭하고 제휴해서 광범한 혁명적 민족전선을 지어 현 단계에 적응한 가장 대중적인 정당으로서 긴급한 국내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sup>25)</sup> 여운형은 자본가는 물론 지주까지도 통일전선에 포섭한다는 전술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2단계 혁명전략, 당면 혁명을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으로 인식하는 것 혁명을 실천하는 전술로 통일전선전술을 구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여운형-인민당 근민당의 노선의 근간은 해방정국에서 박헌영-공산당의 노선의 근간과 완전히 일치한 것이다. 여운형과 박헌영 간의 상이점은 전술의 실천에 있어서 나타났을 뿐이다. 여운형은 당면 혁명추진의 중심조직으로 통일전선에 더 큰 비중을 둔 데 반해 박헌영은 중심조직으로 당에 더 큰 비중을 두었고, 여운형은 통일전선의 포섭대상을 지주까지 확대한 데 반해 박헌영은 지주를 타도대상으로 설정했다. 또한 여운형은 “이제는 사상운동이 아니고 정치운동으로 행동을 옮기게 되었으며 이제는 정치운동인 까닭에 때로는 양보가 있어야 할 것이요, 포섭이 있어야 할 것”<sup>26)</sup>이라고 말한 데서 드러난 바와 같이 정치운동(좌우합작운동)에 더 큰 비중을 둔 데 반해 박헌영은 정치운동보다 대중적 혁명투쟁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sup>27)</sup> 공산주의자와 기본이념 즉 궁극 목표가 동일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 동일하고, 다만 당면 혁명의 추진을 위한 전술실천에서만 차이가 있는 사람의 사상은 공산주의 이거나 공산주의에 가까운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한편, 여운형은 ‘민주주의’, ‘진정한 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란 용어도 공산주의자들과 완전히 동일한 의미로 사용했다. 여운형 자신이 말한 바와 같이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그것을 말하는 사람의 사상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sup>28)</sup> 여운

24) 「조선인민당의 선언...」, 『몽양여운형전집』1, 237 쪽

25) 『조선인민보』 1945. 12. 8; 『몽양여운형전집』1, 246 쪽

26) 여운형, 「나의 정견」, 『몽양여운형전집』1, 264 쪽

27) 이러한 전술적 차이로 인해, 여운형은 좌우합작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데 반해 박헌영은 좌우합작운동을 집요하게 반대·방해했던 것이다.

형은 자기와 인민당이 말하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경제적 민주주의를 그 전제로 하는 정치형태’이며, ‘국민의 대다수의 근로층의 경제적 해방을 달성할 수 있는 정치방법’이라고 정의했다.<sup>29)</sup> 그는 46년 8월에 발표한 글에서 “북조선의 민주주의적 체건설을 같이 조정하여 남북통일 가능의 직전상태에 들어갈 것이오, 북선의 그것을 부정 또는 찬성하려는 태도로써는 남북통일·통일적 임시정부 수립은 전연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sup>30)</sup> 여운형은 또 46년 11월 북한의 김일성과 김두봉에게 보낸 비밀편지에서 그 두 사람에게 “민주주의 건설을 위해 투쟁하느라 얼마나 바쁘십니까?”라고 인사했다.<sup>31)</sup>

‘경제적 민주주의를 그 전제로 하는 정치형태’나, ‘근로층의 경제적 해방을 달성할 수 있는 정치방법’이란 통상적인 용어로는 사회주의 혹은 사회주의를 토대로 한 정치체제이다. 여운형이 46년 8월 현재 북한에서 진행 중인 토지개혁 등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조치들을 ‘민주주의적 건설’이라고 표현한 것이나 공산주의자인 김일성과 김두봉이 46년 11월 현재 북한에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조치들을 취하는 것을 ‘민주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가 말하는 ‘민주주의’의 실질적 의미가 사회주의 혹은 사회주의를 토대로 한 정치체제임을 극명하게 확인해준다. 민주주의를 사회주의와 동의어처럼 사용하는 것은 사회주의자들의 독특한 용어법이다.

이상과 같이 볼 때, 해방정국에서 여운형이 신봉한 정치사상은 사회주의 사회 실현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사상, 곧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는 결코 아닌)였다고 확인할 수 있다. 단, 그가 혁명을 추구하면서도 당면 혁명을 위해 사상운동보다 정치운동을 강조한 점 등으로 보아 여운형의 사회주의는 혁명적 사회주의, 즉 공산주의보다는 민주적(의회주의적) 사회주의에 더 가까운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sup>32)</sup>

28) 여운형은 “국내의 모든 정당이 그 강령에 민주주의를 내걸지 않은 당이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말로 표현된 민주주의이지만 그것을 말하는 사람의 해석에 따라 그 내용과 구체적 실현방법에 있어서 의도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말했다. 『조선인민보』 1945. 12. 8; 『몽양여운형전집』1, 247쪽.

29) 『조선인민보』 1945. 12. 8; 『몽양여운형전집』1, 247쪽.

30) 여운형, 「민주정당활동의 노선」, 『조선인민보』 1946. 8. 11~12; 『몽양여운형전집』1, 355쪽.

31) 여운형, 「김일성, 김두봉에게 보낸 사신」1, 『몽양여운형전집』1, 332쪽.

#### IV. 여운형과 국내외 정치세력 간의 관계(1)

해방공간에서 여운형의 국내외 정치세력과의 관계는 동맹, 제휴, 적대 등 3가지로 나누어 기술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여운형과 동맹적 관계에 있던 국내외 정치세력과의 관계를 기술하고, 다음 절에서 여운형과 제휴관계 및 적대관계에 있던 국내외 정치세력과의 관계를 기술하기로 한다.

해방정국에서 여운형과 동맹관계에 있던 국내외 정치세력은 남북한지역의 공산당과 북한주둔 소련군이었다. 오늘날 상당수의 연구자들이 여운형과 인민당 근민당을 중간(도)파로 분류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명백히 배치되는 것이다<sup>33)</sup> 여운형과 그의 당이 중간파가 아니고 좌익진영에 속했다는 사실은 여운형과 그의 당이 스스로 거듭 천명했다. 여운형은 이미 45년 12월에 “우리 인민당을 좌익 중간당이라고 공식적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으로서는 우리 당의 진실한 성격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sup>34)</sup> 여운형은 또 인민당과 공산당은 기본이념이 동일하다고 밝히면서 “대중획득에 있어서도 공산당과 결코 마찰되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 의식수준이 높은 층은 공산당 산하로 집결될 것이고 그 이외의 층은 우리 산하로 모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sup>35)</sup> 여운형은 46년 8월 인민당이 당면혁명인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을 달성하기 위한 강령에 있어

32) 이 글에서 말하는 혁명적 사회주의는 혁명적인 방법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할 것을 추구하며 혁명 직후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에 의한 과도적 독재의 도입을 추구하는 사상을 의미하고, 민주적 사회주의는 의회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할 것을 추구하며 체제전환 후 과도적 독재를 추구하지 않는 사상을 의미하며,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체제를 사회주의 체제로 완전히 전환시키는 것은 추구하지 않으면서 자본주의 체제의 반(反)노동자적 폐해와 경제·사회적 불평등의 시정을 추구하는 사상을 의미한다.

33) 여운형과 인민당을 중간(도)파로 분류하는 연구자들의 대부분은 해방정국에서 ‘중간파’의 의미나 그들의 노선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하지 않고, 여운형과 인민당의 사상과 전술에 대한 치밀한 추적·분석을 하지 않은 채, 그리고 인민당의 성격을 해설하는 김오성의 글에서 ‘인민당은 계급적으로 중간당’이라는 구절의 의미를 오해하여 그와 같이 잘못 분류하고 있다. 여운형이 비밀리에 김일성 및 소련군과 빈번히 접촉하면서 긴밀하게 협력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던 해방정국에서 여운형과 인민당의 노선을 중도노선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이 드러난 오늘날에도 그렇게 규정하는 것은 학문적 성실성을 결여한 것이다.

34) 『조선인민보』 1945. 12. 8; 『몽양여운형전집』1, 246쪽

35) 『조선인민보』 1945. 12. 7; 『몽양여운형전집』1, 251쪽

서 공산당과 일치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신민당(전 독립동맹)과 공산당으로 더불어 현 단계의 민주주의적 공동과업을 완수하기에 맹군적(盟軍的) 관계를 취하여 오던 중이다”라고 밝혔다.<sup>36)</sup> 인민당이 당원들에게 공산당과의 이중당적을 허용했고 인민당원의 다수가 공산당원이었다는 사실<sup>37)</sup>을 고려하면 인민당과 공산당 간의 관계는 ‘맹군적 관계’보다는 ‘동일한 집단에 단체명칭만 다른 관계’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운형은 전술적인 이유에서 대중 앞에서는 자신이 중간파가 아닌 좌익이라는 점을 고의적으로 모호하게 표현했지만, 좌익진영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가 북한공산세력에 의존하는 좌익임을 분명히 천명했다. 그는 46년 9월 하순 평양을 방문했을 때 소련군 장교들과 북한 공산당 간부들에게 “나는 북조선에 의지하고 있지만 북조선은 나를 신임하지 않는다. 나는 좌익이다. 미군정은 나를 못살게 굴고 있다”고 말했다.<sup>38)</sup>

인민당의 이론가 김오성도 “인민당은 근로대중을 중심으로 한 전인민의 정치적 집결체이며 근로대중을 중심으로 한 전인민의 완전해방을 위한 정당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민당은 좌익정당과 아무런 대립관계에도 서있지 않다. 아니 차라리 근로대중의 완전한 해방을 위해서는 공동전선을 취할 우당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오직 상이한 점은 좌익정당이 계급의식으로 무장한 투사만을 구성요소로 하는데 반하여 인민당은 그 혁명세력을 전인민층에서 집결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sup>39)</sup> 여기서 말하는 ‘좌익정당’은 공산당을 말한다. 이러한 좌익노선(공산당과의 동맹노선)으로 인해 여운형 인민당은 공산당과 더불어 46년 2월 민주주의민족전선을 결성했고, 46년 8월부터는 공산당, 신민당과 더불어 좌익3당 합당작업을 전개

36) 여운형, 「민주정당활동…」, 『조선인민보』 1946. 8. 11~12; 『몽양여운형전집』, 351 쪽

37) 여운형은 김일성과 김두봉에게 보낸 편지에서 “인민당 조직부가 공산당 세포집단에 장악되어 있어서 인민당의 모든 지방조직이 공산주의자들의 지휘 아래 있다”고 밝혔으며 해방정국에서 남로당원으로 활동했던 박갑동은 그의 저서에서 “[공산당원] 여운형의 인민당 조직에도 프락치를 넣어 인민당원 총수가 약 2만 명인데 그중 70퍼센트가 공산당 프락치이며 중앙위원의 5분의 3 이상이 공산당원이었다. 확실히 공산당원이 아닌 사람은 이만규, 최근우, 이여성 등 몇 명에 불과했다”고 기술했다. 여운형, 「김일성, 김두봉에게 보낸 사신」, 『몽양여운형전집』, 332 쪽 박갑동 『통곡의 언덕에서』(서당, 1991), 174 쪽

38) 중앙일보 현대사연구팀, 『발굴 자료로 쓴 한국 현대사』(중앙일보사, 1996), 245 쪽

39) 김오성, 앞의 논문, 45 쪽

했다.

여운형이 이끄는 인민당 세력은 좌익3당 합당과정에서의 권력투쟁<sup>40)</sup>과 여운형의 좌우합작활동 지속으로 인해 박헌영-공산당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후에도 자기들이 중간파가 아니라 좌익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인민당재건 전국대표자대회는 47년 2월 “종래의 인민당을 재정비 재강화하고 배전의 강고한 결의로서 재출발을 천하에 선포한다.....세간에서는 왕왕 인민당을 이른바 중간정당으로 오인하는 인사가 없지 않은 듯하나 우리는 그러한 정치노선을 허용치 않는다. 우리 인민당은 궁극적으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있을 수 없는 무계급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이미 혁명적 추진을 결의한 자이다”라고 선언했다.<sup>41)</sup> 여운형 추종세력은 47년 5월 근로인민당을 결성한 후, “남로당이 신당 필자 주 근로당과 공동투쟁을 기대한다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환영하는 바이며 우리는 밑으로부터 끓어오르는 민주주의적 세력을 토대로 남로당과 제휴하여 통일정부수립에 매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sup>42)</sup> 그들은 박헌영과의 전횡이 싫어서 남로당에 들어가지 않고 별도의 정당을 만들면서도 혁명을 위한 투쟁에서는 공산주의 정당과 협력하는 노선을 유지했던 것이다.

여운형은 박헌영과는 동맹관계이면서도 남한 좌익진영 내에서의 헤게모니 장악을 둘러싸고 갈등하는 관계에 있었지만 북한의 김일성과는 박헌영과의 관계보다 훨씬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했다. 여운형은 김일성과 45년 10월부터 비밀 접촉을 시작했으며, 매우 자주 평양을 비밀리에 왕래하며 김일성과 회합했다.<sup>43)</sup> 여운형은

40) 좌익합당을 박헌영파가 전횡하면서 여운형의 입지를 완전 무시하자 여운형은 자기들의 추종자를 데리고 박헌영-공산당이 주도하는 통합당과 별도로 사회노동당을 만드는 등 심각한 권력투쟁을 전개했다.

41) 『경향신문』 1947. 2. 1; 삼지연 앞의 책 321 쪽

42) 『중외신보』 1947. 4. 16; 『몽양여운형전집』1, 368 쪽

43) 여운형의 행적을 추적한 한 책은 여운형이 ① 46년 2월, ② 46년 4월, ③ 46년 5월, ④ 46년 7월, ⑤ 46년 9월, ⑥ 47년 1월 ⑦ 47년 봄 등 총 7회에 걸쳐 비밀리에 혹은 반공개리에 평양을 왕래했다고 기술했다. 그중 ①은 김일성 저작집 제2권에서 확인되었고 ②와 ⑤는 귀순한 북한정권 고위간부의 증언과 북한주둔 소련군 고위 장성이 남긴 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었다. 나머지는 여운형 주변인사들의 회고록에서 산발적으로 기술된 것이나 그 진위 여부는 불확실하다. 한편 혹자는 여운형이 46년에 5회에 걸쳐 북한을 방문했다고 주장했다. 한민성 『추적 여운형(갑자문화사, 1982), 440~448쪽, 정병준 「여운형의 좌우합작·남북연합과 김일성」, 『역사비평』 38 호(1997. 가을), 21, 28~30쪽, 『김일성저작집』제2권(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34쪽, 중앙일보 현대사연구

또 소련 유학을 명분 삼아 두 딸을 평양으로 보내 김일성의 처 김정숙의 보호를 받도록 했다.<sup>44)</sup> 이러한 협조관계로 인해 해방정국에서 여운형은 김일성의 지시를 잘 이행했고 김일성은 여운형의 활동을 지원했다.

자료에 따르면, 여운형은 김일성과 박헌영 간에 합의된 실제로는 양인이 소련군으로부터 지시 받은) 모스크바협정에 대한 대책을 수용했다. 박헌영은 모스크바협정 발표 직후 평양으로 김일성을 찾아가서 소련의 지령을 받아 모스크바협정을 지지하는 투쟁을 전개하기로 합의했으며 여운형은 김일성과 박헌영이 합의한 바에 따라 자기가 견지해온 신탁통치반대 입장을 꺾고 모스크바협정을 지지했다. 또 46년 4월 초 김일성과 박헌영은 평양에서 미소공위에서 논의되는 한반도통일 임시 정부 수립문제와 관련된 사항들에 관한 입장을 조율했으며, 여운형은 남조선 민주주의민족전선의 의장 자격으로 미소공위에 관한 사항을 말할 때 그에 관한 김일성-박헌영의 조율사항을 복창하듯이 말했다.<sup>45)</sup> 그런가 하면, 김일성은 박헌영 몰래 여운형과 접촉하면서, 46년 7월에는 박헌영의 반대를 꺾고 여운형의 좌우합작을 지지했으며, 46년 8월부터 진행된 남한 좌익3당 합당작업과 관련하여 합당된 좌익정당의 당수로 여운형을 내세우려 했다.<sup>46)</sup> 남한지역 좌익3당의 합당작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박헌영과가 여운형과를 무시하면서 전횡하여 남한 좌익진영이 크게 분열되고 여운형이 합당된 좌익정당의 대표가 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여운형은 46년 9월 평양으로 김일성을 찾아가 박헌영의 종파주의적 전횡을 비판하고 남한 좌익3당의 합당작업을 잠시 중단시켜줄 것을 호소했다. 그러한 호소에 따라 김일성은 남한 좌익3당의 합당작업을 잠시 중단하도록 조치했다.<sup>47)</sup> 여운형이 김일성과 김두봉 및 북한의 친구에게 보낸 편지들의 내용을 보면, 여운형이 남한의 정세를 김일성에게 보고하고 김일성으로부터 지시 혹은 지원을 받는 관계였음이 드러난다. 여운형과 김일성이 이처럼 긴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남한 좌익진

---

팀, 앞의 책, 244~246쪽.

44) 자세한 것은 정병준, 위의 논문, 22쪽 참조. 여운형이 두 딸을 평양에 보낸 것은 소련과 김일성에 대한 자신의 충성심을 확인시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도 있다.

45)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비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중앙일보사, 1992), 188~192, 214~215, 219쪽 참조.

46) 위의 책, 233~234, 245~246, 259쪽.

47) 위의 책, 262쪽, 중앙일보 현대사연구팀, 앞의 책, 245쪽.

영 내에서의 여운형과 박헌영 간의 갈등관계와 남북한 전체 좌익진영의 지휘권을 둘러싼 김일성과 박헌영 간의 경쟁관계 때문이었다. 당시 여운형과 김일성은 다같이 박헌영을 견제해야 하는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긴밀한 협력 관계를 형성·유지할 수 있었다.

한편, 해방정국에서 박헌영과 여운형 및 남한 좌익진영 지도자들은 김일성에 의해 지휘되었고, 김일성은 북한주둔 소련군에 의해 지휘되었으므로, 여운형은 북한주둔 소련군과도 동맹관계에 있었고 소련군의 지휘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주둔 소련군 정치담당 부사령관이며 미소공동위원회 소련 측 대표였던 스티코프의 비망록에서 확인된다. 46년 9월에 있었던 여운형의 평양방문과 관련된 스티코프 비망록에는 여운형이 소련군의 지휘를 받는 존재임을 확인시켜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여운형은 당분간 [좌익3당]통합을 추진하지 말 것을 제기했다...스탈린 동지 앞으로 암호전문을 보내 여운형에게 어떠한 답변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령을 요청했다(9월 21일).

▲ 로마넨코의 보고: 김일성과 여운형의 회담이 있었다 여운형은 재차 소련 군사령부 지도부와의 회담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여운형에게 어떠한 답변을 줄 것인가에 대해 지시를 하달.

▲ 로마넨코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들을 하달했다: 북조선 지도자들과 여운형의 회담을 허용할 것, 남조선 좌익3당의 합당을 잠시 중단할 것 공산당은 반드시 합법적으로 존재해야 할 것, 북조선은 여운형을 신뢰하고 있다고 말할 것, 남조선 좌우합작을 추진하지 말 것. 왜냐 하면 이것은 [남한지역에서] 중앙정부의 수립을 앞당길 것이기 때문이다(9월 26일).

▲ 회담은 좋은 분위기 속에서 3시간 동안 지속됐다 회담에는 로마넨코 삼원 여운형 김일성 등이 참석했다. 그 여운형 가 관심을 표명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 답변이 주어졌다. 제1문제-미소공동위원회에 대해 그는 공동위원회 사업을 신속히 재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제2문제 신뢰와 상호관계에 대해 북조선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게 됐다. 북조선의 상황에 만족해 했다. 여운형과의 회담에 대해 스탈린 동지에게 암호전문을 보냈다(9월 28일).

▲ 로마넨코. 여운형은 떠나갔고 38선을 무사히 넘었다(10월 1일).

▲ 발라시노프. 여운형으로 하여금 타협을 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10 월 3일).<sup>48)</sup>

여운형이 김일성 곧 소련군의 지시와 지원에 따라 활동했다는 것은 당시 서울에서 발행되었던 친여운형계 신문 『독립신보』의 보도에서도 시사되었다. 『독립신보』는 여운형의 평양방문 사실을 보도하면서, “여씨의 북조선 방문은 여러 가지 각도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는데 북조선과 타협된 점에 대하여 여씨 측근자답에... 여씨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므로 합당공작은 앞으로 여씨 중심으로 추진케 될 것이며, 합작문제도 역시 여씨의 종래 의견을 구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는데...”라고 기술했다.<sup>49)</sup>

평양방문을 마치고 서울에 돌아온 여운형은 좌우합작을 추진하지 말라는 소련군의 지시를 어기고 좌우합작을 진전시켰다. 여운형은 “남조선에서 북조선에 대한 허보가 많다시피 북조선에서도 [남조선에 대한] 허보가 많아 걱정이다.....우익이 싫건 좌익이 싫든 간에 할 수 없이 합작하여 연립내각과 같이 되는 좌우를 통한 합작이 있어야 비로소 통일이 되고 독립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sup>50)</sup> 좌우합작을 계속 추진했다.

여운형이 소련군과 김일성의 지시를 무시하고 좌우합작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은 소련군과 김일성이 여운형과를 완전 거세하는 방식으로 합당을 추진하는 박헌영과를 강력히 제재하지 않고 합당된 좌익정당의 당수로 여운형을 내세우기로 했던 당초의 약속 이행을 분명하게 보장하지 않는 데 대한 반감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운형은 남한 정계에서 독자적인 활로를 찾기 위해 소련군-김일성의 지시를 무시하고 좌우합작을 적극 추진했던 것으로 보인다.<sup>51)</sup>

여운형은 소련군과 김일성의 지시를 무시하고 좌우합작위원회 활동을 계속 전개하면서도, 김일성과 소련군에게 자기의 좌우합작위원회 참여가 남한 경찰의 개편(남한경찰로부터 친일파 축출), 미군정으로부터 반동세력 축출(한민당계 인사들

48) 중앙일보 현대사연구팀, 위의 책, 245~246, 259~260쪽.

49) 『독립신보』 1946. 10. ?; 『몽양여운형전집』1, 322쪽

50) 『조선일보』 1946. 10. 5; 국사편찬위원회 『자료 대한민국사』3( 탐구당 1970), 446 쪽

51)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양동안, 『대한민국건국사: 해방3년의 정치사』( 현음사, 2001), 256~257 쪽 참조

의 축출), 미소공위 재개 촉진, 미군정의 실패 유도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자기의 좌우합작 노력 및 좌익 3 당 합당에 대한 자기의 입장을 지원해줄 것과 자기가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sup>52)</sup> 여운형의 이러한 변명과 부탁은 소련군과 김일성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련군 김일성은 오히려 여운형이 만든 사회노동당을 해산하라고 강요했다.<sup>53)</sup> 여운형은 이때부터 소련군과 김일성으로부터 사실상 버림 받은 것으로 보이며, 사로당은 11월16일 자진해체를 결의했고(사로당의 완전 해체는 47년 2월에 실현되었다), 뒤이어 여운형은 좌우합작의 활동 포기 및 정계은퇴를 선언했다.<sup>54)</sup>

## V. 여운형과 국내외 정치세력 간의 관계(2)

해방정국에서 여운형은 김규식으로 대표되는 중간과 세력과는 제휴관계를 형성했고, 미군정과는 비적대·비협조의 관계를 형성했으며 이승만·김구·한민당으로 구성되는 우익진영과는 적대관계를 형성했다.

여운형은 해방정국의 정치세력들을 좌익과 우익으로만 분류하고 중간과의 존재를 무시했다. 여운형의 생각으로는 반탁운동에 참여하면 우익세력이고 신탁통치를 지지하여 민주주의민족전선에 참여하면 좌익이었던 것이다. 실제로 해방정국에서 반탁진영에도 불참하고 민전에도 불참한 정치세력은 거의 없었다. 여운형은 반탁운동에 참여한 우익세력을 ‘반동-파쇼적 우익’과 ‘애국 민주적 우익’으로 구분하

52) 여운형, 「김일성, 김두봉에게 보낸 사신」1, 『몽양여운형전집』, 333~334, 336 쪽 중앙일보 현대사 연구팀, 앞의 책, 251~252쪽.

53) 46년 11월 남한의 좌익계 인사들이 평양으로 가서 북로당 정치위원들과 비밀연석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에서 남한 공산당 측 사람들이 남한의 좌익3당 합당을 촉진하기 위해 북로당이 사회노동당의 해체를 촉구하는 특별결정서를 채택해줄 것을 요청해서, 북로당은 사로당 해체를 촉구하는 결정서를 발표함과 아울러 별도로 사로당에 공작원을 보내 해체를 촉구했다.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앞의 책, 273쪽

54) 여운형은 정계은퇴를 선언한 지 약 2개월 여 만에 인민당 재건을 표방하고 다시 정치활동을 재개하여 47년 5월 근로인민당을 창당하고 박헌영의 남로당과 더불어 우익진영에 대한 반대투쟁을 재개했다. 여운형의 정계복귀가 여운형과 소련군 김일성 간의 관계 복원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아직 없다.

고, 전자와는 비타협적으로 대결하고 후자와는 제휴를 추진했다.

여운형이 비타협적 대결의 대상으로 삼은 ‘반동 파쇼적 우익’은 해방정국에서 우익진영의 중심부를 구성했던 이승만·김구·한민당이고, 제휴의 대상으로 삼은 ‘애국 민주적 우익’은 우익진영의 주변부에 있던 후에 중간파로 떨어져 나간 김규식·원세훈·안재홍 등과 그들의 추종자들이었다.<sup>55)</sup> 여운형이 김규식 등과 그들의 추종자들을 ‘민주적 우익’으로 호칭하는 이유는 46년 봄까지 그들이 이승만·김구·한민당 등과 더불어 반탁진영에 참여했고, 반탁진영은 우익으로 호칭되었기 때문이다. 김규식 등은 오늘날의 연구자들에 의해서는 해방정국의 중도(간)파세력으로 호칭된다.

여운형은 46년 5월부터 김규식과 좌우합작운동을 전개하면서 김규식·원세훈·안재홍 등과 제휴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여운형은 김규식 등과의 좌우합작운동 초기에는 좌익의 중심세력인 박헌영과와 함께 좌우합작운동에 참여했다. 그러나 박헌영과가 좌우합작을 반대·방해하자 좌익의 주변부에 있는 세력만을 이끌고 좌우합작운동을 지속시켰다. 여운형은 46년 10월부터는 동맹세력인 박헌영과 보다는 제휴세력인 김규식 등과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며 좌우합작 7원칙을 만들어 발표했고, 좌우익의 중심세력이 합작 7원칙을 거부함으로써 좌우합작이 실패로 끝난 후에도 좌우합작위원회 활동을 전개했다. 여운형은 자기의 그러한 활동이 좌익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으나, 좌익진영의 중심부 및 소련군은 그것이 좌익의 궤도를 이탈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소련군과 김일성은 남한 공산당(당시는 남로당)의 요청대로 여운형의 그런 활동을 강력히 제지(制止)했다. 소련군·김일성의 제지에 따라 여운형은 전술한 바와 같이 46년 12월초 좌우합작위원회 활동의 중단과 함께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여운형은 47년 2월부터 남로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인민당을 재건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면서(인민당 재건 노력은 근민당 창당으로 귀결되었다) 정치활동을 재

55) 여운형이 제휴 대상으로 설정한 세력의 지도자들인 김규식, 원세훈, 안재홍 등은 모두 8.15 해방 전에는 여운형과 동지적 관계에 있었던 인간적으로 가까운 인사들이다. 김규식과 원세훈은 1910년대 말에서 20년대 초의 기간에 중국에서 공산당 활동 및 임시정부 반대 국민대표자대회 활동을 전개할 때의 여운형의 동지들이었다. 여운형과 안재홍은 일제말기 국내에서 활동하면서 동지적 관계를 가졌고, 8.15 해방 직후 건준을 결성할 때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았던 동지였다.

개했다. 정치활동을 재개한 여운형은 남로당과의 동맹관계와 김규식 등과의 제휴 관계를 다같이 복원하려 했다. 남로당과의 동맹관계 복원은 그해 5월 근민당을 창당하고, 근민당이 남로당과 동맹관계를 가질 것을 선언했으나 남로당이 그에 적극 화답하지 않음으로써 불완전하게 이루어졌다. 김규식 등과의 제휴관계 복원은 보다 원만하게 진전되었다. 여운형은 47년 6월 중순 김규식 원세훈 안재홍 등과 회합, 좌우합작위원회의를 보강하는 새로운 기구로 시국대책협의회를 결성하기로 결정했다. 시국대책협의회는 7월 3일 정식으로 결성되었고 여운형과 김규식은 그 단체의 공동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시국대책협의회는 여운형과 김규식 등의 제휴 복원을 통해 좌우익으로부터 분리된 중도파세력 규합·확대의 유력한 구심체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로부터 약 2주 후 여운형이 암살당함으로써 여운형과 김규식 등 간의 제휴관계도, 중도파세력의 규합·확대의 구심체도 다같이 사라졌다.

여운형과 미군정 간의 비적대·비협조의 관계<sup>56)</sup>는 표면과 이면이 상충되는 이중적 관계였다. 여운형은 미군진주 초기 인천에 상륙하는 남한진주 미군 제 진에 자기 동생 여운홍을 포함한 영접대표단을 파견하여 환영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미군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했다.<sup>57)</sup> 그는 또 45년 10월 “나는 연합군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즉 만났으니 「하우 두 유 두」라 인사할 것이고, 둘째 번에는 「탱큐」라고 감사의 뜻을 표해야 할 것이고 셋째로는 「굿바이」가 있을 뿐이다. 절대로 멀리서 온 연합군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고 대중에게 당부하기도 했다.<sup>58)</sup>

그러한 여운형의 언행은 미군정으로 하여금 여운형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만들었으며, 여운형을 미군정의 협조자로 포섭하려 했다.<sup>59)</sup> 그래서 미군정은 45년 10월 미군정의 한국인 고문단을 임명할 때, 여운형을 고문단의 일

56) 여운형과 미군정 간의 관계를 ‘대립을 주축으로 하면서 부분적으로 타협 하는 관계로 묘사하는 연구자도 있다. 정병준, 「해방직후 몽양 여운형의 노선과 활동」, 『한국현대사연구』 창간호(1998), 62쪽 참조

57) 양동안, 앞의 책, 125~126쪽.

58) 『조선주보』 1945. 10. 22; 『몽양여운형전집』, 234쪽.

59) 정병준, 앞의 논문(1998), 63~67쪽 참조

원으로 임명했다. 여운형은 고문단의 구성이 한민당계 인사들로 편중되었다고 비판하면서 고문단회의에는 불참했다.

모스크바협정이 발표된 후 우익진영이 격렬한 반탁투쟁을 전개함에 따라 미군정 지휘부는 모스크바협정을 지지하는 여운형에 대해 더욱 긍정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미국은 당시 한반도 문제를 모스크바협정에 입각하여 해결하려는 정책을 취하고 있었으므로, 그러한 미국의 정책을 좌절시키게 만드는 이승만 김구 중심의 반탁 운동을 혐오하고, 모스크바협정을 지지하는 세력들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군정은 모스크바협정을 지지하는 세력 중에서 박헌영 공산당은 소련의 앞잡이로 간주하여 멀리했지만, 여운형에 대해서는 소련과 연결되지 않은 친공적 기회주의자로서 미군정의 협조자로 포섭할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했다.

여운형은 이미 45년 10 월경부터 김일성과의 접촉을 통해 북한주둔 소련군과 연결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정 지휘관들은 여운형을 소련과 연결되지 않은 인사로 오판하고 있었다.<sup>60)</sup> 그러한 오판에 근거하여 미군정은 모스크바협정에 의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 협조할 남한지역 정치세력을 육성하기 위해 미군정이 기획한 좌우합작운동의 한 축으로 여운형을 선정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여운형은 남한 좌익의 중심부인 박헌영-공산당의 반대를 물리치면서 좌우합작에 적극 참여했고, 나중에는 소련군-김일성의 중단 지시까지 무시하고 좌우합작운동을 지속했다.

46년 10월 미군정이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을 설치하려 할 때도, 여운형은 그에 대한 박헌영과와 소련군-김일성의 강경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도입법의원 설치에 반대하지 않았다. 여운형은 그러한 자신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미군정에서 제시한 입법기관의 문제에 대해서도 기계적으로 반대함은 현명한 정책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이 군정에 대한 보조적인 자문기관화 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 기관이 진정한 민주적 원칙에 선 민족적 발언과 감시를 실행할 수 있는 권위를 보장하는 일방, 과도정부수립에 대한 민족적 요망을 이것으로써 대행 해소함이 없도록 엄중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사법과

60) 미군정의 이러한 오판은 47년 7월 여운형이 암살당한 후 사건수사를 위해 미군정 수사대가 여운형의 집에서 각종 수사자료를 압수하고, 그 자료 속에서 여운형과 김일성-소련군 간의 긴밀한 관계를 말해주는 단서들을 포착할 때까지 유지되었다.

경찰을 숙청하여 민중에게 주고 있는 심리적 강압을 일소하지 않고는 공정한 선거는 도저히 불가능함을 지적하고 진정한 민주주의적 대안과 요구를 제시하여 입법기관이 반민주주의분자에게 장악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함이 중요한 일이다.<sup>61)</sup>

미군정은 여운형의 그러한 태도에 보답하여 46년 12월 남조선과도입법위원회의 관선의원(미군정 사령관이 임명하는 의원) 45명을 임명할 때 여운형과 그의 추종자 5명을 관선의원으로 임명했다<sup>62)</sup> 여운형은 입법의원 등록을 거부했고, 그의 추종자들만 등록했다.

여운형은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미군정에 대해 비적대적 태도를 취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미군정과 우익세력을 분리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미군정을 실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한 사실은 4절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그가 소련군 김일성과 비밀접촉하면서 그들의 지시에 따라 왔다는 사실과 그가 김일성·김두봉에게 보낸 서한의 내용에서 확인된다. 뿐만 아니라 그는 공개적인 발언을 통해서도 소련의 정책을 지지하고 미국의 정책을 반대하기도 했다. 여운형은 미소공위가 진행될 때마다 미소공위에서 소련대표가 주장한 것(예를 들면, 반탁진영을 통일임시정부 구성에 관한 공위의 협의대상에서 배제하지는 것)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또 소련이 주장하고 미국은 반대하는 한반도 주둔 미소군 조기철수론을 주장했다.<sup>63)</sup>

61) 여운형, 「건국과업에...」, 『몽양여운형전집』, 331 쪽

62) 미군정이 당시 과도입법의원 관선의원 45명을 임명함에 있어서 우익진영의 최고지도자이며 당시 남한 국민의 여론조사에서 ‘존경하는 지도자’ 1, 2위에 랭크되었던 이승만과 김구를 배제하면서 여운형계 인사들을 6명이나 임명했다는 것은 미군정이 여운형에 대해 크게 배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63) 여운형은 46년 10월 초 평양방문을 마치고 서울에 돌아온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평양에서 김일성, 김두봉과 남한의 당면 문제들에 대해 협의했음을 밝히고 “3 천만이 요구하는 공위를 가급적 속한 기간 내에 재개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소 양 주둔군의 철퇴를 남북이 거족적으로 절규하는 운동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대구 10월 폭동 직후에는 “미소공위가 이대로 중지되고 과도정부 수립이 이 이상 지연된다면 민족의 운명에 중대한 위기가 도래할 것은 남조선 일대의 최근의 불행한 상태가 이미 경고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미소에 대하여 공위속개와 과도정부 수립을 급속 실행하기를 요구하는 동시에 이 국제적 책무를 실현하는 능력과 성의가 없다면 양국은 당연히 우리 국토에서 즉시 철퇴하여 우리 건국문제를 우리 민족의 완전한 자

당시 북한 지역에서는 ‘민주개혁’을 통해 이미 사회주의화의 길이 확보되었고, 민족구성원의 정부인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김일성 정권)가 확립되어 소련군이 철수해도 독자적인 통치가 가능하며, 군사력이 크게 강화되어서 소련군이 철수해도 기존의 사회주의화 길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에 반해 남한에서는 민족구성원의 정부가 수립되지 못하여 미군이 철수할 경우 독자적 통치기구를 가지지 못하여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컸으며, 그에 더하여 좌익세력이 매우 강하고 우익진영이 분열되어 있어서 미군철수 후 정치세력 간의 협상에서 좌익이 우위를 점할 수 있으며, 군사력도 미약하여 만일 정치적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력충돌이 벌어지는 내전이 발생할 경우에는 북한군과 남한 좌익세력의 무장투쟁력이 우익을 압도할 가능성이 컸다. 소련은 그러한 전망 하에 미소 양군 조기철수론을 주장했다. 미국은 바로 그러한 전망 때문에 남한의 공산화를 저지하기 위해 미소 양군 조기철수론에 반대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여운형이 소련의 미소 양군 조기철수론에 동조한 사실은 그의 민족통일노선의 현실적 내용을 이해함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된다.

여운형과 우익진영 중심세력(이승만·김구·한민당세력) 간의 적대적 관계는 46년 초 신탁통치 찬반문제를 둘러싼 좌우대립이 격화된 때부터 시작되어 여운형이 암살당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여운형은 8.15 직후에는 이승만, 김구, 한민당 등 우익진영의 중심세력에 대해 강한 적대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 건국준비위 조직 때는 송진우를 건준에 끌어들여 했고, 인공발표 때는 이승만, 김구, 김성수 등을 인공지도부 명단에 포함시켰다. 또한 이승만 귀국 직후에는 이승만을 민족의 지도자로 존대하고 이승만이 주도한 독촉중앙협의회에 박헌영보다는 긍정적인 자세로 참여했으며, 김구의 귀국 직후에는 김구의 임정과 여운형의 인공 간의 합작을 모색했다. 모스크바협정 발표 후 신탁통치를 둘러싸고 좌우익 간의 격렬한 대결이 전개되고 모스크바협정을 지지하는 좌익통일전선 기구인 민주주의민족전선이 결성된 전후의 시점부터, 그리고 여운형과 김일성 소련군 간의 연결이 공고해지면서부터 여운형은 우익 중심세력을 타도의 대상으로 규정하여 적대적 태도를 취하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그들과의 투쟁을 다짐했다.

---

주에 일입할 것을 강경하게 주장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신문』 1946. 10. 5; 『몽양여운형전집』1, 321~322쪽, 여운형 「건국과업에…」, 『몽양여운형전집』, 331쪽

여운형은 46년 2월 민전 결성 직후 “조선을 망국으로 유도한 양반계급이 그 경제적 토대로 삼는 봉건적 토지관계를 유지하려는 반민주주의 분자와 파쇼 분자를 제외하고는 애국자로 자처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제창[필자 주: 좌우익을 망라한 통일기관 구성]에 찬성할 것이다. 내가 말하는 통일기관에 이러한 반민주주의자까지도 참가시키지는 것은 아니고 그 자들과는 금후로 싸워나가야만 한다”고 주장했다.<sup>64)</sup> 46년 3월에는 “이로 5백여년 동안 착근 성장하여 온 봉건의 잔재는 완전히 소탕되지 못하였고 과거 36년간 일본제국주의 악정의 부식(扶植)으로 발아된 신생 재벌은 교묘히 변태 가장하여 완고 무퇴한 꾀를 꾸는 정치적 광상가들의 반민주주의 일파와 합류하여 민주주의 국가의 출현을 극력방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종래부터 조선의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여온 혁명세력의 나머지 과업은 이와 같은 독소를 참초제근(斬草除根)하는 것”이라고 선언했다.<sup>65)</sup>

여운형은 또 47년 3월 근로인민당 창당을 준비하면서 발표한 글을 통해, “민주진영 강화의 의의는 반동진영을 포위 공격하여 민중에게서 고립화시키고 이어서는 완전히 절멸시키는데 있는 것”이라고 천명했다.<sup>66)</sup> 그는 암살당하기 직전인 47년 7월 초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의 진의가 관명된 금일에 있어 국제지식의 빈궁과 정권욕에 불타, 대외명분을 떠들고 순수한 애국인민을 오도하는 반탁진영의 죄과는 참으로 크다. 반탁운동은 결과에 있어서 조선을 국제적으로 고립화하고 국가인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뿐이다. 더욱이 반탁진영에서 일부는 공위참가를 보류하고 일부는 반탁하기 위한 공위참가를 한다는 것은 공위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므로, 우리 민주국가 건설의 일대 관문인 공위에 참가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반탁진영을 비판했다.<sup>67)</sup>

## VI.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여운형의 정치사상과 국내외 정치세력과의 관계에 비추어 여

64) 『조선인민보』 1946. 2. 22; 『몽양여운형전집』1, 359쪽

65) 여운형, 「민주주의국가건설의 선무」, 『인민과학』 1권 1호(1946. 3); 『몽양여운형전집』1, 281쪽

66) 여운형, 「민주진영 강화에 대한 사건」, 『중외신보』 1947. 3. 24; 『몽양여운형전집』1, 364쪽.

67) 『우리신문』 1947. 7. 9; 『몽양여운형전집』1, 377~378쪽.

운형의 민족통일노선의 2개 핵심원리인 ‘좌우합작’과 ‘자주’의 현실적인 의미 또는 구체적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첫째, 여운형이 말하는 ‘좌우합작’의 현실적 의미는 좌익과 우익 간의 합작이 아니라 좌익과 중도파 간의 합작이며, 좌3 대 중도1의 구성비로 좌익이 지배하는 남북통일 임시정부를 조직하기 위한 수단이다.

5절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여운형은 46년 2월 이후 우익의 중심세력인 이승만·김구·한민당을 투쟁의 대상, 혹은 ‘참초제근’해야(싸울 자르고 뿌리를 뽑아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좌우합작의 파트너로 생각지 않았다. 여운형은 반탁운동을 전개해온 이들을 좌우합작의 대상에서 배제했을 뿐만 아니라 통일정부 구성을 위한 미소공위의 협의대상에서조차 배제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같이 볼 때 여운형이 말하는 좌우합작은 우익 전체와 좌익 전체 혹은 우익의 중심세력과 좌익의 중심세력 간의 합작이 아니다. 그가 실질적으로 의도하는 좌우합작은 좌익 전체와 ‘민주적 우익’(혹은 ‘애국적 우익’) 간의 합작이다.<sup>68)</sup> 여운형이 말하는 ‘민주적 우익’이란 김규식·원세훈·안재홍 등과 그들의 추종세력으로서, 이들은 사상을 기준으로 해방정국의 정치세력을 분류할 때 우익보다는 중도파에 속하는 세력이다. 따라서 여운형이 말하는 좌우합작은 진정한 의미의 좌우합작이 아니며, 보다 정확히 말하면 좌중(左中)합작이 될 것이다.

또한 여운형은 한반도 통일 임시정부를 좌·우·남·북합작을 통해 구성할 것을 주장하면서, 제1단계로 남한에서 좌중합작(명분상으로는 좌우합작)을 하고 제2단계로 남한의 좌중합작 조직과 북한의 정치세력이 합작하여 남북통일 임시정부를 구성한다는 구상을 밝혔었다. 그러한 구상대로 하게 되면, 남북통일 임시정부는 남한의 우익진영이 전면 배제된 가운데 좌익3 대 중도파1의 구성비로 좌익이 압도적인 지배지위를 확보하는 정부로 구성될 것이다. 남한에서 좌익1 대 중도파1의 비율로 합작하고, 그러한 남한의 합작조직과 북한의 정치세력이 1 대 1의 비율로

68) 박헌영파의 좌우합작 거부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좌익 내 친여운형파만 좌우합작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여운형의 의도(구상)는 좌익 전체를 좌우합작에 참여시키는 것이었다. 그러한 여운형의 의도에 따라 좌우합작운동 초기에 박헌영파의 허헌과 이강국이 좌우합작위원회에 참여했었다. 46년 8월부터 박헌영파는 좌우합작을 더욱 강하게 반대하고 허헌과 이강국 등 박헌영파 인사들도 좌우합작위에서 탈퇴했으며, 그에 따라 좌익 전체와 ‘민주우익’ 간의 합작을 도모하려던 여운형의 의도도 좌절되었다.

남북합작을 하게 되면, 당시 북한에서 활동 가능했던 정치세력은 모두가 좌익이기 때문에 통일정부에서의 구성비는 좌익3 대 중도파1이 될 수밖에 없다. 4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김일성이 박헌영의 반대를 꺾고 여운형의 좌우합작을 지지하게 된 것은 이러한 계산법에 영향 받은 바가 적지 않았을 것이다.

좌우합작론에서 드러난 여운형의 좌편향·북한편향성은 그가 북한의 단독정권은 존중하면서 남한에서의 단독정권 수립에는 극력 반대한 사실에 의해 더욱 확실하게 입증된다. 여운형은 46년 2월의 기자회견에서 “북에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있고 남에는 미군정이 있는데 자율통일정부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설혹 남조선에만 단독정부가 실현된다면 그 결과는 조선인민을 분열로 오도하고... 그러니 나는 이 단독정부에 참가치 않을뿐더러 적극적으로 반대하겠다”라고 말했다.<sup>69)</sup> 그는 임시인민위 통치하에서 전개되는 북한사회의 변화를 ‘북조선의 민주주의적 세 건설’이라고 묘사했고,<sup>70)</sup> 46년 9월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와서는 ‘북조선은 각 방향에 걸쳐 건설의욕이 작열하다’하다고 칭찬했다.<sup>71)</sup> 그는 또 47년 5월 근로인민당 창당식 개회사에서 “우리 민족을 팔아먹고 지금도 민족을 팔아먹으려는 친일파 민족반역자들[필자 주. 좌익이 남한의 단독정부 추진 우익세력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비하적 명칭은 통일정부가 수립 안 된다면 남조선만이라도 정부를 세워서 자기들의 야욕을 채우려 하고 있다. 근로인민당의 목적과 사명은 이 반동분자들의 계획과 음모와 모략을 분쇄하고 완전 자주독립을 찾는데 있는 것]”이라고 선언했다.<sup>72)</sup>

이러한 여운형의 발언들은 그가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남한의 미군정과 동격의 정부로 인정하고,<sup>73)</sup> 임시인민위원회 통치하에서 전개된 북한사회의 변화를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뿐, 그것이 민족의 분열을 초래할 북한의 일방적인 단독정권이라는 점은 비판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남한에서 단독정권을 수립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민족의 분열을 초래하고 민족을 팔아먹으려는 행위라고

69) 『조선인민보』 1946. 2. 22; 『몽양여운형전집』1, 358쪽

70) 여운형, 「민주정당활동...」, 『몽양여운형전집』1, 355쪽.

71) 『서울신문』 1946. 10. 5; 『몽양여운형전집』1, 321쪽.

72) 『중외신보』 1947. 5. 25; 『몽양여운형전집』1, 358쪽.

73) 당시 북한 공산당과 주민들도 ‘임시인민위원회는 우리의 정부이다’고 선전했으며, 훗날 발행된 북한의 도서들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인민민주주의독재정권이라고 규정했다. 김한길 『현대조선력사』(사회과학출판사, 1983), 228쪽 참조

격렬하게 비판·반대했음을 의미한다. 요컨대 여운형은 북한에서 단독공산정권이 수립된 것은 옳은 일이고 남한에서 단독반공정권이 수립되는 것은 민족의 분열을 초래하는 나쁜 일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런 견해를 한 단계 더 진전시키면 북한에는 단독공산정권이 수립되어야 하고 남한에는 단독정권이 수립되지 않은 채 북한 공산정권의 지배를 받거나, 남한에서 정권이 수립될 경우라도 북한 공산정권에 반대하지 않는 정권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된다.

여운형은 왜 그토록 좌편향·북한편향적이었던가? 한 마디로 답하자면, 그의 사상이 사회주의였고, 그가 소련군-김일성-남한 공산주의자들과 동맹관계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둘째, 여운형이 말하는 ‘자주’의 실질적 의미는 모든 외국들에 대해 민족의 주권 혹은 자결권을 관철하려는 진정한 의미의 자주가 아니라 소련에 대해서는 추종적이고 미국에 대해서는 배척적인 ‘친소 반미적 자주’였다.

이 논문의 4절과 5절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여운형은 해방정국에서 약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북한주둔 소련군 정치장교들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고, 남한의 미군정에 대해서는 외면적으로는 비적대·비협조의 태도를 보이면서 내면적으로는 반대하는(미군정의 실패를 유도하는) 입장을 취했다.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해 미국과 소련의 정책이 대립되는 모든 쟁점들에서 여운형은 언제나 소련의 정책을 지지하고 미국의 정책에 반대했다.

해방정국에서의 여운형의 활동 가운데는 북한주둔 소련군의 지시를 추종하지 않은 것도 있다. 4절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여운형은 소련군의 지시를 무시하고 좌우합작 활동을 지속했고, 미군정의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설치를 반대하지 않았다. 그 사안에 대해 여운형이 소련군의 지시를 무시한 것은 남한에서 독자적인 정치적 활로를 개척해보려는 그의 의도와 민족자주의식이 함께 작용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필자는 생각한다. 그러나 이때도 여운형은 소련군과 김일성에게 자신의 ‘불복종’이 남한경찰의 개편, 미군정으로부터 반동세력 축출, 미소공위재개 촉진, 미군정의 실패 유도 등을 목적으로 한 것, 다시 말해서 소련군과 김일성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변명하면서, 자기의 활동을 지원할 것과 자기가 북한에 가서 직접 해명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러한 여운형의 태도는 그가 말하는 자주가 ‘친소노선의 틀 속에서의 자주’를 벗어나지 않음을 확인해준다.

여운형이 주장하는 ‘좌우합작’의 현실적 의미가 좌중합작이고 좌3-중1의 구성비

로 이루어지는 남북통일 임시정부를 조직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자주’의 현실적 의미가 친소반미의 틀 속에서의 자주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에 더하여, 46년 2월부터 진행된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변혁으로 인해 이질화된 남북사회상황을 일치시키는 문제에 대한 여운형의 입장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파악하게 되면 여운형의 민족통일노선을 더욱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질화된 남북사회상황을 일치시키는 문제에 대한 여운형의 입장은 이 논문의 2절과 3절에서 인용되었던 여운형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발언에서 포착할 수 있다.

38이북에서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통일정부가 수립되면 이것을 강력히 추진하려고 하겠지만 민주주의적으로 볼 때 투표한 국회 헌법으로 작성될 것이니 좌우 어느 편이 국회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정책이 시행되는 것이니 이북의 시책은 확정적이라고도 볼 수 없다.<sup>74)</sup>

북조선의 민주주의적 제건설을 같이 조정하여 남북통일 가능의 직전상태에 들어갈 것이요, 북선의 그것을 부정 또는 찬성하려는 태도로써는 남북통일-통일적 임시정부 수립은 전연 불가능한 것이니 우리가 고심 추진하는 좌우합작도 이러한 점에서 주안을 두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sup>75)</sup>

이 발언들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북한지역에서 이루어진 토지개혁 등 사회주의 지향적 변혁조치들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일을 피하고, 좌중합작에 의한 남한의 정치기구와 북한정권이 공동으로 북한의 사회변혁 내용을 조정하고, 그것을 남북한 양 지역에 공통적으로 실천하여 남북사회를 동질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여운형의 입장은 그 문제에 대한 당시 남한 좌익진영의 표준적 입장과 비교할 때 외형상 차이가 있다. 남한 좌익진영의 표준적 입장은 다음과 같은 김오성의 글 속에 잘 정리되어 있다.

남북통일에 있어 첩경은 별수 없이 조선의 민주개혁을 위해서 먼저 그 기초를

74) 『독립신보』 1946. 6. 12; 『몽양여운형전집』1, 300쪽.

75) 여운형, 「민주정당활동…」, 『몽양여운형전집』1, 355쪽.

구축하고 있는 북조선과 같이 남조선에 있어서도 민주개혁을 단행하는 것이다. 이미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그 기초를 성축해놓은 북조선의 민주개혁은 조금도 후퇴하든가 또는 개변할 것이 아니라 그 방향대로 오히려 적극 추진시켜 그것이 전국의 민주개혁을 위한 추진력이 되어야 할 것이며, 남조선은 북조선과 같이 민주개혁을 단행함으로써 민주개혁을 통해서 남북통일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sup>76)</sup>

여운형의 입장은 북한의 사회주의 지향적 사회변혁 내용을 조정하여(다소간 수정하여) 남북한 양 지역에 공통되게 실천함으로써 남북사회상황을 일치시키자는 것이고, 좌익진영의 표준적 입장은 북한지역의 사회주의 지향적 사회변혁 내용을 그대로 남한에 도입하여 남북사회상황을 일치시키자는 것이다. 언어적 표현상으로 보면 양자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여운형의 통일노선에 있어서 임시통일정부의 구성비가 좌3 대 중1이라는 점, 북한에는 민족구성원들에 의해 조직·운영되는 독자적 정부가 정착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남북사회상황의 동질화에 관한 여운형의 입장과 남한 좌익의 표준적 입장 간의 차이는 무의미해진다.

왜냐하면, 북한지역의 사회변혁 내용을 조정함에 있어서 좌3-중1로 구성된 기구에서 토론·결정되고, 그 결정이 좌3-중1의 구성비를 가진 정부에 의해 실천된다면 그 결정과 실천이 좌익의 주장대로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에서는 민족구성원들에 의해 조직·운영되는 사회주의 지향적인 인민민주주의 정치질서가 확립되었고 그런 질서 속에서 진행된 사회변혁은 평화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성질의 것이며, 남한에서는 민족구성원들에 의해 조직·운영되는 정부도 존재하지 않고 안정된 정치질서도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개되는 압도적으로 우월한(정부구성비에 있어서 수적으로 우월할 뿐만 아니라 북한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좌익세력과 열등한(정부구성비에 있어서 수적으로 열등할 뿐만 아니라 남한지역을 장악하지도 못하고 있는) 중도세력 간의 남북한 사회 동질화를 추진하는 정치협상의 결과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남한의 상황을 북한의 상황에 맞추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조건에서는 남북한 사회상황의 동질화에 관한

76) 김오성, 「민주개혁과 남북통일」, 『개벽』75 호(1947. 8), 19-20 쪽 이 글을 발표할 무렵의 김오성은 여운형과 결별하고 남포당의 이론가로 활동하면서 좌익진영 중심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었다.

여운형의 입장과 좌익진영의 표준적 입장이 내용적으로 동일해지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에 불과할 것이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여운형의 민족통일노선의 핵심은 한반도의 통일정부로 친소·반미적 입장의 좌익지배 연립정부를 수립하고, 남북한의 사회상황을 인민민주화된 북한의 상황에 맞추어 일치시키자는 것이 된다.

## 참고문헌

- (북한)사회과학출판사 편,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 강만길·심지연, 『우사 김규식: 항일독립투쟁과 좌우합작』, 서울: 한울, 2000.
- 국사편찬위원회, 『자료 대한민국사』1~7, 서울: 탐구당, 1968~1974.
- 김광식, 「해방직후 여운형의 정치활동과 ‘건준’ ‘인공’의 형성과정」, 최장집 편 『한국현대사』 I, 서울: 열음사, 1985, 184~224 쪽
- 김오성, 「민주개혁과 남북통일」, 『개벽』 75 호, 1947. 8, 12~27 쪽
- \_\_\_\_\_, 「조선인민당의 성격」, 『개벽』 73 호, 1946. 1, 44~51 쪽
- 김한길, 『현대조선력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3.
- 김형준, 「여운형론」, 『신시대』 1 권 3 호, 1946. 7, 32~34 쪽
- 몽양여운형선생전집발간위원회 편, 『몽양여운형전집』1, 서울: 한울, 1991.
- 몽양여운형선생추모사업회 몽양연구소 편, 『여운형 노트』, 서울: 학민사, 1994.
- 박갑동, 『통곡의 언덕에서』, 서울: 서당, 1991.
- 박달환, 「여운형론」, 『인민』 2 권 3 호, 1946. 4, 66~72 쪽
-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1997.
- 신병식, 「한국현대사와 제3의 길 여운형, 김구, 조봉암의 노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4 집3호, 2000, 61~81 쪽
- 신복룡, 『한국분단사연구』, 서울: 한울, 2001.
- 신형철, 「여운형의 정치활동과 이념에 관한 연구」, 마산: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 심지연, 『인민당연구』,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1.
- 양동안, 『대한민국건국사』, 서울: 현음사, 2001.
- 여연구, 『나의 아버지 여운형: 잃어버린 거성의 재조명』, 서울: 김영사, 2001.
- 여운홍, 『몽양여운형』, 서울: 청하각, 1967.

- 이기형, 『몽양 여운형』. 서울: 실천문화사, 1984.
- 이만규, 『여운형선생 투쟁사』. 서울: 민주문화사, 1947.
- 이현구, 「여운형씨의 정치견해」. 『백민』3권 5호 (1947. 9), 8~9쪽.
- 정병준, 『몽양여운형평전: 머리가 희일수록 혁명 더욱 붉어졌다』. 서울: 한울, 1995.
- \_\_\_\_\_, 「여운형의 좌우합작: 남북연합과 김일성」. 『역사비평』 38 호(1997. 가을), 17~33 쪽
- \_\_\_\_\_, 「해방직후 몽양 여운형의 노선과 활동」. 『한국현대사연구』 창간호, 1998. 7, 57~99 쪽
- 조동호, 「조선혁명의 현단계」. 『혁명』 1권 1호, 1946. 1, 8~9쪽.
-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저작집』 제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비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서울: 중앙일보사, 1992.
- 중앙일보 현대사연구팀, 『말글자료로 쓴 한국현대사』. 서울: 중앙일보사, 1996.
- 한민성, 『추적 여운형』. 서울: 갑자문화사, 1982.

● 투고일 : 2004. 11. 1

● 심사완료일 : 2004. 11. 25.

● 주제어(keyword) : 좌우합작(Left-Right Coalition), 통일전선(united front), 한국통일(Korean Reunification), 민족자주(National Self-determination),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bourgeois democratic revolution).